

## 초등학생의 경제이해력이 합리적 소비와 용돈 관리 행위에 미치는 영향

장 규 종\*

**【요약문】**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경제이해력이 합리적 용돈 소비 및 관리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65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경제이해력은 합리적 용돈 소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충동 소비나 용돈 관리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진 않는다. 둘째, 경제에 대한 흥미와 합리적 경제 행위에 대한 자신감은 용돈 소비 및 관리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용돈 액수와 용돈에 대한 만족도는 충동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경제교육은 경제이해력을 중시하지만, 경제 흥미와 합리적 소비 및 관리 행위에 대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실생활과 연관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를 지속해서 고취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학생의 실질적 경제 활동 소재인 용돈을 활용한 경제교육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경제이해력, 충동 소비, 용돈 관리, 합리적 소비

---

\* 미사중앙초등학교(lasola12@korea.kr).

## I. 서론

현대 사회의 개인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 속에서 수많은 경제 문제를 겪는다. 이때 개인은 학습한 경제적 개념과 사고를 토대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려 노력한다. 이러한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은 성숙한 경제 의식 함양과 함께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이런 점에서 경제적 지식과 역량을 가르치는 학교 내 경제교육은 계속해서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의 표준 경제개념 학습과 핵심 경제역량 함양을 위해선 경제이해력(economic literacy)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이해력이란 개인이 경제 상황 및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경제개념의 인지 수준(심재학, 2021, p. 66)이다. 학생들은 경제에 관한 지식 및 기능·태도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 현대 사회에서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 만약 경제이해력이 미흡하다면 개인은 실질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우며, 사회적으로도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경제교육의 성과를 가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선 학생들의 경제이해력 수준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경제이해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측정 문항을 사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10년대 이후 경제교육활성화방안(기획재정부, 2010)을 발표하여 초·중·고 학생들의 경제이해력 지수를 높이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교육협의회(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CEE)가 개발한 TEL(Test of Economic Literacy), TEK(Test of Economic Knowledge), BET(Basic Economic Test)<sup>1)</sup> 등을 번역·수정하여 학생들의 경제이해력을 측정 및 분석하였다(김경모, 2010). 또한 한국경제교육협회(KAEE)에 의해 개발된 경제이해력 측정 도구(2010), 경제이해도 측정 문항(2013, 2020) 등을 활용하여 초·중·고 경제이해력 수준을 측정하였다(서중해 외, 2020).

그런데 실제로 학생이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실천적 접근과 함께 어려서부터 자주 체험하게 되는 소재는 용돈이라 할 수 있다. 용돈은 학생들의 소비 습관과 지출 습관을 기르고 바람직한 경제적 행위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도구로 사회과 및 실과 등에서 학습하고 있다. 더불어 가계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1) BET는 미국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문항이며, TEK는 7~9학년용, TEL는 11~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평가 문항이다.

용돈에 관한 학생의 권한과 관심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박송춘, 2011). 학생들은 용돈 소비 및 관리 행동을 통해 경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용돈은 학생이 학습한 경제 원리와 지식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소재라 할 수 있다. 경제이해력이 합리적 경제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지식적 요소라면, 용돈의 합리적 소비 및 관리 행동은 경제 지식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실천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이해력이 용돈의 합리적 소비 및 관리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는 것은 지식과 실천 및 태도의 관계 속에서 경제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의의가 될 것이다. 경제 지식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며, 일반적으로 경제 지식이 부족할수록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김홍찬, 2019, p. 81). 따라서 지식적 측면인 경제이해력과 실천적 측면인 용돈 소비 및 관리의 연관성을 살필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경제이해력과 용돈 소비 및 관리 행동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아직 미흡하거나 오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에 새로 개발된 경제이해력 조사 문항(KDI, 2020)을 사용하여 초등학생의 경제이해도를 측정하고, 용돈의 합리적 소비 및 관리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연관성을 파악하려 한다. 아동기에 습득된 선천적인 소비 행동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며 성인기의 소비 행동에 큰 영향을 주기에(강지현·천혜정, 2010), 초등학생의 용돈 소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그 자체로도 중요하다. 더불어 경제이해력과의 연관성을 살피는 것은 경제교육의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경제이해도가 용돈의 합리적 소비·관리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합리적 경제교육의 방안 및 내실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경제이해력

학생의 경제이해력을 측정하는 것은 경제교육 대상자의 수준 파악과 함께 경제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효과적인 교육 실현에 도움이 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제이해력 연구는 박송춘(2011), 한진수(2012, 2013a) 등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이들 연구는 미국에서 개발된 측정 도구인 BET(2010, CEE)를 사용하거나 한국에서 개발한 경제이해력 조사 문항(2010, 2012)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관련하여 한국경제교육협회는 2008년 표준 경제개념을 토대로 2010년 측정 문항을 제작하여 평가를 시행하였다. 그 후 2013년 표준 경제개념 개발 연구(오영수 외, 2012)를 토대로 측정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평가를 시행하였다(박형준 외, 2013). 하지만 2013년 이후 전국 단위 경제이해력 조사는 중단되었으며, 다시 기존 문항을 사용하기엔 적합성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현재 강조되는 경제역량에 관한 측정 문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었다(서중해 외, 2020).

이에 따라 기존 문항을 검토 및 수정하여 새롭게 경제이해력 조사 문항(KDI, 2020)이 개발되었다. 해당 문항은 타당도·신뢰도가 검증된 경제이해도 측정 문항(박형준 외, 2013)을 중심으로, 표준 경제개념 개발 연구(오영수 외, 2012)를 고려하여 지식·이해·적용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서중해 외, 2020, p. 6). 그리고 생애주기별 핵심 경제역량(김주훈 외, 2017)을 고려하여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또한 추가하였다(서중해 외, 2020, pp. 16-18). 해당 내용과 문항에 대한 평가 요소(서중해 외, 2020, pp. 60-79; 노현중·박상은, 2021, p. 35)를 종합하여 보면 <표 1>과 같다.

<표 1>을 볼 때, 경제이해력 평가 문항(KDI, 2020)은 주요한 경제교육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 핵심 경제역량인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과 이에 해당하는 경제교육 핵심 내용인 ‘가상공간에서 거래’, ‘신용카드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인식’, ‘노동에 대한 소득 획득과 돈의 가치에 대한 인식’, ‘남에게 돈을 빌릴 때 반드시 갚아야 하는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도 구성하였다. 결론적으로 경제이해력 평가 문항(KDI, 2020)은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가장 유의미한 측정 도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학생의 경제이해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도출되는 경제이해력의 결과와 함께 합리적 소비 및 용돈 관리에 대한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 1> 경제이해력 평가 문항의 개념 및 평가 요소

문항	기본 개념	평가 요소	관련 경제개념 및 경제역량 (경제교육 핵심 내용-핵심 경제역량)
1	희소성과 선택	희소성	희소성(구입한 재화와 서비스의 효과적 관리-소비-지출 관리 역량)
2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합리적인 소비-소비-지출 관리 역량)
3	교환과 특화	교환	교환(화폐)
4		특화	분업과 특화(특화)
5	시장과 가격	시장경제	시장과 자원 배분
6		수요와 공급	수요 공급 및 가격의 결정
7		시장공급	경쟁과 가격의 기능
8	노동 등 기업과 생산	생산 활동	생산과 생산요소
9		노동	노동을 통한 소득 획득과 돈의 가치에 대한 인식(생산요소, 생산성, 인적자본, 소득-자산관리역량)
10	소비자와 소비	소비	소비와 의사결정
11		소비자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12		신용카드 정보	소비자 권리와 책임(게임 아이템 매매 등 가상공간에서의 거래 시 유의하는 태도-소비-지출 관리 역량)
13	금융과 자산 관리	저축과 이자	금융 상품과 자산 관리(용돈 관리-자산관리역량)
14		신용카드	화폐, 금융, 신용, 신용카드(신용카드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인식-소비-지출 관리 역량)
15		신용	금융, 신용(남에게 돈을 빌렸을 때는 반드시 갚아야 함을 아는 태도-자산 관리 역량)
16	시장경제와 정부 역할	세금	세금과 정부지출(납세의 의무와 세금의 활용에 대한 이해-자산 관리 역량)
17	국민 소득과 경제 성장	경제성장	경제 성장(국민 소득과 경제 성장)
18	인플레이션과 실업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과 실업)
19		물가	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과 실업)
20	국제거래와 환율	국제거래	무역(국제거래)

## 2. 용돈 및 용돈 소비·관리

### 1) 용돈 및 용돈 습득 변수

용돈이란 ‘개인이 자질구레하게 쓰는 돈 또는 특별한 목적을 갖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다(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2022). 사람들은 용돈을 통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주체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를 사용한다. 초등학교 학생이 금융에 관해 배우는 학습 교재인 ‘슬기로운 생활금융(한진수 외, 2022)’에는 다음과 같이 용돈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다.

용돈은 어른들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주시는 돈입니다. 우리는 용돈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저축하거나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용돈을 잘 관리하면 합리적인 경제 습관을 몸에 익힐 수 있습니다(슬기로운 생활금융, 2022, p. 41).

이승신·유재경(2000)에 의하면 용돈은 ‘부모님, 가족, 친지에게 받거나 스스로 벌어서 생긴 금전으로, 본인이 자율적으로 의류, 학용품, 교양·오락, 저축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개념을 살펴볼 때, 용돈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경제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Gruenberg(1973)와 Nickell et. al.(1976)은 용돈의 습득 출처에 따라 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allowance)과 부정기적으로 받는 용돈(dole), 예상외로 받는 용돈(gifts), 자기 스스로 버는 용돈(earning)으로 세분화했다. Deacon & Firebaugh(1981)은 용돈 습득 형태에 따라 정기적으로 주는 용돈(allowance), 필요에 따라 조금씩 나누어 주는 용돈(dole), 집안일이나 일의 대가로 지급하는 용돈(payment) 등으로 분류하였다(김영신·강선자, 1997).

최근 용돈 습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학부모 교육정보 커뮤니티 ‘맘앤톡’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77.4%는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있으며, 한 달 용돈 액수에 대한 응답은 ‘1~2만 원’ 27.5%, ‘1만 원~5천 원’ 22.5%, ‘5천 원 미만’ 22.6%로 나타났다. 용돈 지급 주기에 대해선 52.9%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였으며 25.1%는 ‘한 달에 한 번’, 12.6%는 ‘매일’ 등으로 응답하였다(MoneyS, 2016). 하나은행의 금융 플랫폼 ‘아이부자 앱’의 데이터 분석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생은 한 달 기준 22,300원을 용돈으로 받으며, 용돈을 받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가정 내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일보, 2022).

본 연구에서는 용돈의 의미 및 학자들의 분류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용돈 습득 출처, 용돈 습득 대가 행위 여부, 용돈 습득 주기, 습득 액수, 용돈을 습득하여 사용한 기간 등을 용돈 습득 관련 변수로 설정하였다. 해당 변수는 용돈 관련 선행연구(김영신·강선자, 1997; 강지현·천혜정, 2010; 엄상문, 2010; 오다연·김정숙, 2017)에서 사용된 주요한 변수이다.

## 2) 용돈 소비 및 용돈 관리 변수

초등학생은 아동 소비자<sup>2)</sup>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재량 소비액이 과거 대비 증가했다. 둘째, 소비 욕망에 대한 절제력이 부족하다. 셋째, 광고된 상품에 대한 소비 욕구가 점차 강화된다. 넷째, 소비자로서 가게 구매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다섯째, 합리적 소비 능력을 키울 소비자교육 기회가 미흡하다(이기춘, 1999). 따라서 초등학생은 어려서부터 돈을 소비 및 저축하는 방법을 학습해야 하며, 특히 복잡해진 오늘날의 환경에는 더더욱 체계적인 용돈 소비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한진수, 2017).

전미선·박형준(2007)에 의하면 학생들의 소비 행동 유형은 크게 합리적 소비, 비합리적 소비로 구분된다. 합리적 소비는 물건의 이용 가치를 고려하여 효용의 극대화 및 저비용 고효율의 개념 속에서 계획을 세워 하는 소비이다. 이에 비해 비합리적 소비는 순간적인 유혹에 끌려 필요하지 않음에도 계획 없이 즉석에서 물건을 사거나, 따라 하거나, 과시를 위해 하는 소비이다. 학생이 용돈을 소비하는 것은 실질적인 경제 행위라 할 수 있다. 근데 학생들은 경제교육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 및 소비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따라서 용돈을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충동적인 소비 행동을 지양하는 것은 학생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이해력과 경제역량을 활용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의 용돈 소비 성향에 관한 변수를 설정하였다.

오다연·김정숙(2017)에 의하면 용돈 관리 역량은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용돈을 효율적·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스스로 용돈을 관리하고 사용하면

2) 아동기란 대체로 6-12세를 의미하며, 좁은 의미의 아동기는 유아기를 지난 다음의 단계로 초등학생 재학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이기춘, 1999; 강지현·천혜정, 2010에서 재인용). 초등학생 또한 아동기로서 아동 소비자의 특징이 일부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서 계획, 실행, 평가 등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초등학생은 용돈 기입장 작성을 통해 용돈을 관리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서 용돈 관리 변수로 용돈 관리(사용) 주체, 관리(저축 및 소비) 계획 여부, 용돈 기입장 작성 여부 등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 3. 선행연구 분석

학생의 용돈 사용실태 및 용돈 관리에 관한 분석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다연·김정숙(2017)은 제주지역 청소년 소비자의 용돈 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용돈 통장이 있으며 용돈 만족도가 높고, 소비자사회화 수준이 우수하며, 용돈 관리 태도 및 기능이 높을수록 청소년 소비자의 용돈 관리 행동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강지현·천혜정(2010)은 초등학생의 돈에 대한 가치관 및 금융 지식이 용돈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초등학생의 성별, 학년, 가정 경제 수준에 대한 주관적 지각, 용돈 수령 방법, 용돈에 대한 부모와의 대화에 따라 금융 지식에 큰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송춘(2011)은 6학년 초등학생의 합리적 소비 습관과 경제이해력의 관계를 분석하여 합리적 소비 습관이 경제이해력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천규승·김솔(2016)은 초등학생의 금융 이해력 지수 측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금융 이해력과 금전 사용 습관이 유의미한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이런 선행연구를 토대로 볼 때 초등학생의 경제이해력과 합리적 용돈 소비 및 관리 행동에 대한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관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공인된 설문 문항을 사용하고자 한다. 경제이해력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측정 도구인데, 측정 도구의 타당도, 신뢰도, 난이도, 도구 형태 등에 따라 조사 결과 및 시사점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한진수, 2013b). 따라서 경제이해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한국 내에 공인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물론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과거 문항도 나름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충분히 존재하지만, 선행연구가 보고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학생들의 변화양상을 새롭게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경제이해력에 대한 조사가 행해진 2013년 이후로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점에서 경제이해력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sup>3)</sup> 과거와는 달리 용돈을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경제 수준과 사용 기회 또한 증가했으며, 학생들이 갖는 경제에



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더불어 경제교육에 관한 내용과 관련 역량 또한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신화된 경제이해력과 용돈 소비 및 관리에 관한 연관성을 살피는 것은 경제교육의 추진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경제이해력 실태와 용돈 사용실태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상호 연계하여 분석한다. 이 목적을 위해 경제이해력 측정과 함께 용돈 사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을 사용하여 용돈의 합리적 소비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려 한다.

#### 1. 측정 도구

경제이해력 측정을 위한 척도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경제이해력 측정 문항(KDI, 2020)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을 통해 학생들에게 중요한 경제 핵심 개념의 인지 수준을 측정하였다.

용돈 습득 관련 변수론 선행연구(Gruenberg, 1973; ickell et. al., 1976; 김영신·강선자, 1997)와 이론적 배경에 제시된 용돈 관련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용돈 습득 출처, 용돈 습득 대가 여부, 용돈 습득 주기, 습득 액수, 용돈 만족도, 용돈을 습득하여 사용한 기간 등을 측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용돈 관리 변수로는 오다연·김정숙(2017)에서 제시되는 용돈 관리 분류와 함께 ‘슬기로운 생활금융’의 내용을 참고해 용돈 관리(사용) 주체, 용돈 관리(소비 및 저축) 계획 여부, 용돈 기입장 작성 여부, 용돈 기입장 작성 이유, 용돈 기입장 미작성 이유, 합리적 용돈 사용에 대한 자신감, 용돈 사용 후 반성 여부를 측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미선·박형준(2007)의 연구를 토대로, 용돈 소비 변수에 대해선 크게 합리적 소비, 충동 소비로 구분하여 해당 변수를 측정할 6문항을 구성하였다.

해당 문항에 대해선 측정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

3) 경제이해력을 조사하지 않았던 약 10년간 교육과정 내 경제교육의 학습 내용은 축소되고, 환경은 나빠졌다. 더불어 학생들의 경제이해력 평균은 초등학생 58점 정도로 후퇴를 우려하는 상황이다(노현중·박상은, 2021).

실시하였다. 주 성분분석을 이용하여 eigen값 1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의 수를 결정하였고, Varimax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행하여 공통성에 있어 0.4이상을 기준으로 항목들을 점검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나타난 바와 같이 요인분석의 결과로 결정된 세 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62.721%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각의 요인에 속해있는 문항들을 조사하여 측정항목들이 0.6이상의 요인 적재치로 분류된 요인 1을 ‘합리적 소비’로 명명하였다. 또한 요인 2는 측정항목들이 0.7이상의 요인 적재치로 분류되었으며 ‘충동 소비’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3은 측정항목들이 0.7이상의 요인 적재치로 분류되었으며 ‘용돈 관리’로 명명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Likert형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합리적 소비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알파 값 .652로, 충동 소비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알파 값 .658로, 용돈 관리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알파 값 .542로 나타났다.

<표 2> 합리적 소비와 충동 소비 및 용돈 관리 요인분석

요인	변수	요인 적재량	설명분산 (고유값)
합리적 소비	물건을 구매할 때 종류와 가격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사러 간다.	.607	21.701 (1.736)
	물건을 구매할 때 물건 가격과 물건의 가치를 비교한다.	.820	
	가격 대비 싸고 품질 좋은 물건을 고르기 위해 노력한다.	.777	
충동 소비	용돈을 사용할 때 즉흥적으로 사용한다.	.722	23.032 (1.843)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보면 필요하지 않아도 구매한다.	.774	
	자신을 뽐내거나 자랑하기 위해 주로 돈을 사용한다.	.763	
용돈 관리	용돈 사용 전 소비 및 저축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771	17.988 (1.439)
	용돈 사용 후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반성한다.	.806	
누적 분산			62.721

경제 주체의 인지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경제 태도나 인식 측면도 행동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한진수, 2013b). 이에 따라 경제 흥미도, 합리적 경제 행위에 대한 자신감 등의 경제 태도 질문을 추가하였다. 단, 용돈 사용 관리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전반적인 경제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 연구 대상 및 조사 절차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7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조사는 경제이해력 조사 문항과 함께 용돈 관리 실태조사 설문을 서면으로 900부 배부하였으며, 그중 740부의 설문 결과를 수합하였다. 조사 결과로 사용할 수 없던 설문 24부, 용돈을 받지 않는 설문 63부를 제외하고 653부를 사용하여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표 3>과 같다.

<표 3> 조사 대상(N=653)

(명, %)

구분		학년		합계(비율)
		5학년	6학년	
성별	남자	158	164	322(49.3)
	여자	175	156	331(50.7)
합계(비율)		333(51.0)	320(49.0)	653(100)

응답 학생을 학년별로 분류하면 5학년이 333명, 6학년이 320명이다. 더불어 남녀 성비 구성 또한 남자 322명, 여자 331명으로 비슷한 인원을 설문하였다. 용돈 소비 및 합리적 경제 활동에 관련한 내용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제시되기에, 연구 대상은 5·6학년 학생들로 한정하였다.

## IV. 조사 결과

### 1. 용돈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 740명 중 653명(88.2%)의 학생들이 용돈을 받고 이를 사용하고 있다. 용돈 소비 및 관리 행위는 대다수 5·6학년 초등학교 학생들이 겪는 실질적이고 주요한 경제 행위라 할 수 있다. 설문 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초등학생의 용돈 관련 실태는 <표 4>와 같다.

대다수 학생(622명, 95.2%)은 용돈을 부모님이나 친척 등 어른들에게 받고 있다.

기존 설문조사의 결과(MoneyS, 2016)와 같이 다수의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용돈을 제공하고 있고, 학생들은 가계 구성원으로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용돈 습득 대가로 특정 행위를 하는 경우는 441명(67.5%)으로 다수의 학생이 용돈을 벌기 위해 특정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적인 용돈 습득이 노동과 소득이라는 개념과도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09명의 학생은(62.6%) 매일, 주 1회, 월 등 일정한 주기로 용돈을 습득하고 있다. 김효정(2004)의 연구에 의하면 용돈을 일정한 주기로 받는 아동이 수시로 받는 아동에 비해 합리적 용돈 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수시로 받는 학생이 244명(37.4%)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위 학생들이 합리적 용돈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습득 액수에 있어선 15,000원 이상 용돈을 받는 학생이 346명(53%)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박송춘, 2011; 이기춘, 1999)와 같이 다수의 학생이 받는 용돈 액수가 과거 대비 증가하고 있고,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학생들에게 용돈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용돈 관리(사용)를 혼자서 하는 학생이 480명(73.5%)인데, 스스로 합리적인 경제 행위를 실천하기 위해선 용돈 관리 및 경제교육이 꼭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용돈을 사용한 기간이 '1년~3년'으로 응답한 학생이 242명(37.1%)이며, '1년 미만'으로 응답한 학생이 237명(36.3%)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학생이 초등학교 시기부터 용돈으로 경제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시기는 용돈을 통해 소비자의 가치관과 함께 소비 행동을 형성시키는 중요한 시기이다. 어려서 잘못된 형성된 소비의식은 성인이 돼서 개선하기 어렵기에(박송춘, 2011), 초등학교 시기에 용돈 관리 및 경제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와 용돈 활용 방법을 반드시 학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용돈 계획 및 관리를 실제로 하지 않는 학생은 273명(41.8%)으로 높은 편이며, 용돈 기입장 작성을 하지 않는 학생은 502명(76.9%)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용돈 기입장 작성을 하지 않는 이유로 '쓰는 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한 학생은 48명(9.8%)으로 매우 극소수이며, 다수의 학생(340명, 67.8%)은 귀찮고 번거로우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생의 합리적 구매 행동을 향상하기 위해선 용돈 관리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김영신·강선자, 1997). 그리고 용돈 기입장 작성은 합리적 경제생활 태도를 기르고 경제 활동을 객관화하는 유의미한 활동이다(엄상문, 2010). 용돈 기입장 작성 이유에 대해 '스스로 선택'이라 응답한 학

생이 다수(97명, 64.2%)인 상황과 종합해 볼 때, 용돈 기입장 교육은 스스로 실천할 동기와 태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를 통해 용돈 계획 및 관리 교육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표 4> 용돈 실태 변수 조사 결과 (N=653)

요인	변수	빈도	백분율(%)
용돈 습득 출처	부모님, 친척, 어른	477	73.0
	본인이 스스로	31	4.8
	본인이 스스로, 어른께도	145	22.2
용돈 습득 대가 여부	행위를 함	441	67.5
	행위를 하지 않음	212	32.5
용돈 습득 주기	매일	21	3.2
	주 1회 정도	167	25.6
	월을 기준	221	33.8
	정해지지 않고 필요시	244	37.4
습득 액수(월)	5,000원 미만	125	19.1
	5,000원~15,000원 미만	182	27.9
	15,000원~25,000원 미만	128	19.6
	25,000원 이상	218	33.4
용돈을 습득하여 사용한 기간	5년 이상	90	13.8
	3년~5년	84	12.9
	1년~3년	242	37.0
	1년 미만	237	36.3
용돈 관리 (사용)주체	부모님이 결정한다	173	26.5
	혼자 한다	480	73.5
용돈 관리 (저축 및 소비) 계획 여부	매우 그렇다	91	19.8
	그렇다	251	38.4
	그렇지 않다	191	29.2
	전혀 그렇지 않다	82	12.6
용돈 기입장 작성 유무	한다	151	23.1
	하지 않는다	502	76.9
용돈 기입장 작성 이유 (N=151)	스스로 선택	97	64.2
	친구가 쓰는 것을 봐서	1	0.7
	부모님이 권유	49	32.5
	학교에서 권유	4	2.6
용돈 기입장 미작성 이유 (N=502)	쓸 필요가 없어서	116	23.1
	귀찮고 번거로워서	224	44.6
	쓰는 방법을 몰라서	49	9.8
	타인의 권유가 없어서	113	22.5

## 2.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제이해력 20문항의 전체 평균은 60.9, 표준편차는 17.99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경제이해력 조사(서중해 외, 2020) 수도권 평균 점수 결과인 58.16보다 높은 결과이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서울 및 경기도 내 대도시 학급 내 학생이고,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서울 평균 지역 점수 61.18과 비슷한 점에서 특별히 큰 차이는 없다. 조사 결과 경제이해력 점수의 최솟값은 15점, 최댓값은 100점으로 나타났다. 경제이해력의 문항별 정답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경제이해력 평가 문항 정답빈도 및 정답률

문항	기본개념	평가요소	정답률(%)	정답률평균(%)
1	회소성과 선택	회소성	51.6	47.1
2		합리적 선택	42.6	
3	교환과 특화	교환	66.5	57.3
4		특화	48.1	
5	시장과 가격	시장경제	58.5	62.5
6		수요와 공급	72.3	
7		시장공급	56.8	
8	노동 등 기업과 생산	생산 활동	55.9	69.3
9		노동	82.7	
10	소비자와 소비	소비	72.3	67.6
11		소비자	40.0	
12		신용카드 정보	90.7	
13	금융과 자산 관리	저축과 이자	38.6	54.6
14		신용카드	45.3	
15		신용	79.9	
16	시장경제와 정부 역할	세금	58.5	58.5
17	국민 소득과 경제 성장	경제성장	56.4	56.4
18	인플레이션과 실업	인플레이션	53.6	60.8
19		물가	68.0	
20	국제거래와 환율	국제거래	78.7	78.7

전체 정답률은 60.9%로 난이도는 보통 수준이었으며, 어려운 문항(정답률 20% 이상~40% 미만)이 1문항, 보통 문항(정답률 40% 이상~60% 미만)이 10문항, 쉬운 문항(정답률 60% 이상~80% 미만)이 7문항, 매우 쉬운 문항(정답률 80% 이상)이 2문항이었다. 최고 정답률 문항은 12번 문항(90.7%)이고, 최저 정답률 문항은 13번 문항(38.6%)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서중해 외, 2020)와 일치한다. 조사 결과를 볼 때, 최저 정답률 문항의 평가 요소인 저축과 이자에 대한 학습이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경제개념 중 정답률 평균이 제일 낮은 개념은 ‘희소성과 선택(47.1%)’이었다. 희소성 및 합리적 선택은 경제교육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자 핵심이다. 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서 선택 및 결정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희소성과 선택’은 경제교육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개념이므로 해당 개념에 대한 학습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성별 및 학년별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는 <표 6>과 같다. 여학생의 경제이해력은 60.69, 남학생의 경제이해력은 60.99로 근소하게 남학생의 평균 점수가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해당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금융 지식이 높게 나타나는 선행연구(강지현·천혜정, 2010)와 차이가 있지만, 단순히 성별에 따른 발달 특징으로 경제이해력을 판단하는 것보다 좀 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년에 있어선 5학년의 경제이해력은 56.15, 6학년의 경제이해력은 65.71로 5학년에 비해 6학년의 경제이해력이 꽤 높고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학년일수록 경제이해력 점수가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한진수, 2012)와 일치한다. 이에 대해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현재 6학년에서 경제 관련 단원을 학습하기에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5학년 및 다른 학년에 경제 단원의 고른 편성을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

<표 6> 경제이해력 응답자 별 조사 결과

요인	변수	경제이해력 평균(표준편차)	t값
성별	여자	60.69(17.49)	-.212
	남자	60.99(18.52)	
학년	5학년	56.15(17.72)	-7.035***
	6학년	65.71(16.97)	

\* p<.05, \*\* p<.01, \*\*\* p<.001

### 3. 용돈 실태조사 변수와 경제이해력

경제이해력과 용돈 실태조사 변수의 관계는 <표 7>과 같다. 용돈 습득 출처에 따라 학생들의 경제이해력을 비교한 결과 ‘본인 스스로 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제이해력이 52.90으로 제일 낮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초등학생 수준에서 본인 스스로 용돈을 버는 것은 부모의 영향과 현실적 한계에 의해 그 방법이 제한되며 액수 또한 낮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초등학생 시기는 법정 생산가능 인구인 15세 이상의 시기가 아니기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쉽지 않다. 따라서 스스로 주도해서 용돈을 버는 행위보단 주변의 지도와 지원이 학생의 경제이해력 발달에 도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용돈 관리(사용)는 ‘혼자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제이해력이 62.90으로 ‘부모님이 결정한다’고 답한 학생들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박상은·노현중(2017)에 따르면 경제에 대한 관심도는 경제이해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해당 결과는 학생이 용돈 관리를 자율적으로 함에 따라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여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생 스스로 용돈 관리를 하며 경제에 관심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습득 출처 요인과 연관해 볼 때, 부모의 지도와 지원으로 학생의 주도적인 용돈 사용 권한과 관리환경을 확대해준다면 경제이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불어 용돈을 받기 위해 ‘특정 행위를 한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경제이해력은 61.72로 아무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경제이해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이 용돈을 습득함에 있어 그냥 받는 것보단, 특정한 노력이나 행동을 통해 용돈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교육에 도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용돈을 매일 혹은 주 1회 받는 것보단 비정기적으로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더 높은 경제이해력 수준을 보였다. 물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니며,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것이 경제이해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박송춘, 2011)와 상이하므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용돈 습득 액수가 높을수록, 용돈을 습득하여 사용한 기간이 많을수록 경제이해력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용돈 기입장 미작성 이유 요인 중 귀찮고 번거롭기에 용돈 기입장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제이해력 점수는 51.73으로 제일 낮았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용돈 기입장은 합리적 경제생활을 가능케 하고 경제 활동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유의미한 활동이다. 용돈 기입장 기록은 경제이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박송춘, 2011),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경제생활 태도와 의식을



길러주는 활동이다. 이에 대한 노력과 동기, 태도가 없다면 경제이해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생들에게 용돈 기입장 작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경제 활동에 대한 의지와 동기를 지속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표 7> 용돈 실태 조사 변수와 경제이해력 비교 결과

요인	변수	경제이해력 평균 (표준편차)	t, F값
용돈 습득 출처	부모님, 친척, 어른	61.10(17.57)	3.248*
	본인이 스스로	52.90(20.23)	
	본인이 스스로, 어른께도	61.69(18.57)	
용돈 습득 대가 여부	특정 행위를 함	61.72(17.62)	1.807
	특정 행위를 하지 않음	59.00(18.65)	
용돈 습득 주기	매일	56.19(21.26)	1.305
	주 1회 정도	59.19(19.49)	
	월을 기준	62.01(16.65)	
	정해지지 않고 필요 시	61.31(17.77)	
습득 액수(월)	5000원 미만	58.68(18.06)	.864
	5000원~15000원 미만	60.71(17.47)	
	15000원~25000원 미만	61.56(19.16)	
	25000원 이상	61.76(17.70)	
용돈을 습득하여 사용한 기간	5년 이상	65.55(18.24)	2.462
	3년~5년	60.17(18.40)	
	1년~3년	60.41(18.11)	
	1년 미만	59.72(17.46)	
용돈 관리(사용) 주체	부모님이 결정한다	55.11(18.28)	-4.969***
	혼자한다	62.90(17.45)	
용돈 관리 (저축 및 소비) 계획 여부	매우 그렇다	58.07(18.73)	2.096
	그렇다	60.13(17.09)	
	그렇지 않다	62.95(18.48)	
	전혀 그렇지 않다	59.80(17.58)	
용돈 기입장 작성 유무	한다	60.39(18.24)	.346
	하지 않는다	60.97(17.93)	
용돈 기입장 작성 이유 (N=151)	스스로 선택	59.02(18.06)	1.661
	친구가 쓰는 것을 봐서	70.00( )	
	부모님이 권유	64.08(18.39)	
	학교에서 권유	46.25(14.36)	
용돈 기입장 미작성 이유 (N=502)	쓸 필요가 없어서	58.98(18.25)	6.563***
	귀찮고 번거로워서	51.73(18.44)	
	쓰는 방법을 몰라서	63.87(16.90)	
	타인의 권유가 없어서	62.50(17.53)	

\* p<.05, \*\* p<.01, \*\*\* p<.001

### 3. 합리적 소비와 용돈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소비 및 충동 소비, 용돈 관리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합리적 경제 행위에 대한 자신감은 합리적 소비·충동 소비·용돈 관리 행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또한 경제에 관한 흥미도는 합리적 소비와 용돈 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따라서 경제교육에 있어서 합리적 경제 행위에 대한 자신감 있는 태도를 기르고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학생들에게 용돈 활용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업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합리적 경제 행위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는 단순히 지식적 내용만 학습하는 것보다 다양한 경제 행동을 할 때 좀 더 도움이 된다. 학생들이 지식적 내용만을 학습하고 실제로 용돈은 받지 않거나, 용돈을 받되 쓰지 않고 모아만 두는 것은 합리적 소비 행위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다양한 소비 및 실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강화된다면 학생들의 합리적 소비를 증대시키고, 충동 소비를 줄이며, 효율적인 용돈 관리를 가능케 할 것이다.

경제이해력은 합리적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경제 지식과 개념이 실제로 합리적 소비 활동을 함에 있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선 금융 지식이 용돈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강지현·천혜정, 2010), 실제로 합리적 소비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경제이해력 또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충동 소비나 용돈 관리에 있어선 유의한 영향이 없다. 따라서 경제이해력만으로는 소비 및 용돈 관리에 전반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고 충동 소비를 지양하며 성공적인 용돈 관리를 위해선, 경제이해력과 함께 개인의 경제적 태도와 가치관이 수반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꾸준한 교육과 실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성별은 합리적 소비와 용돈 관리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합리적 소비와 용돈 관리 수준이 높은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인지적으로 성숙한 발달 특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강지현·천혜정, 2010) 토대로 봤을 때, 이는 인지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용돈 습득 시 대가 행위 유무 요인은 합리적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용돈을 무조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노력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 소비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학년, 용돈 액수, 용돈에 대한 만족도 요인은 충동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충동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은 소비자의 특성상 다양한 매체에 영향을 받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아동 소비자는 광고 상품에 관한 소비 욕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이기훈, 1999), 학생은 성장하면서 광고 상품에 노출되는 상황이 점차 많아지기에 충동 소비 욕구 또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학년이 될수록 충동 소비를 지양하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비판적 시각과 함께 소비 습관에 관한 경제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용돈 액수가 크고 용돈 만족도가 낮을수록 충동 소비 성향이 커지기에 학생에게 너무 과도한 용돈을 부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학생이 주어진 용돈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수준에 맞고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표 8> 회귀 분석 결과

요인	합리적 소비	충동 소비	용돈관리
상수	- (14.883)	- (18.516)	(9.062)
성별	-.098(-2.673)**	-.024(-.656)	-.079(-2.158)*
학년	-.012(-.298)	.084(2.136)*	-.069(-1.760)
경제이해력	.100(2.512)*	-.061(-1.551)	-.023(-.567)
용돈 습득 대가 여부	.118(3.155)**	-.071(-1.920)	.071(1.918)
용돈 사용 결정 주체	-.019(-.519)	.017(.449)	-.031(-.833)
용돈 액수	.053(1.382)	.151(3.969)***	-.053(-1.392)
용돈에 대한 만족도	.046(1.199)	-.152(-3.955)***	.029(.742)
경제 흥미도	.171(4.377)***	.017(.435)	.206(5.259)***
합리적 경제 행위 자신감	.197(5.052)***	-.282(-7.293)***	.216(5.533)***
F	11.413***	12.681***	11.381***
R <sup>2</sup>	.126	.139	.125
Durbin-Watson	1.997	2.030	2.064

괄호 안은 t값이며, \*p<.05, \*\*p<.01, \*\*\*p<.001

## V. 결론

학교 내 경제교육에 있어서 지식적 내용은 항상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학생들은 경제개념과 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이해하여 경제이해력을 향상한다. 경제이해도 조사 문항을 통해 수도권 학생들의 경제이해력 수준을 검증한 점수는 평균 60.9점으로, 이를 높이기 위해선 계속해서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경제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개념 중 희소성과 선택에 관한 개념은 경제학의 기초개념이지만 막상 정답률이 낮았다. 학생들이 이를 어려워하지 않도록 해당 개념학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경제이해력 또한 중요하지만 실제로 합리적 소비, 충동 소비, 용돈 관리에는 합리적 경제적 행위에 대한 자신감과 경제에 관한 흥미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에 비해 경제이해력은 합리적 소비에만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자신감과 흥미를 향상할 수 있도록 실천 활동을 강화하는 경제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용돈을 통해 직접 소비 및 관리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뮬레이션 활동이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용돈을 쓰지 않고 모아만 두거나 경제 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실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용돈을 줄 때 특정한 노력과 행동을 대가로 같이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충동 소비를 지양하기 위해선 지나치게 많은 용돈을 학생에게 부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생이 용돈에 대해 만족하며 수준에 맞고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용돈은 경제교육의 요소로 큰 의미가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학생들은 용돈에 대한 권한과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되었다. 다수의 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용돈을 소비하고 이를 관리하므로, 이를 사용해서 경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용돈 기입장 작성이 합리적 경제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경제교육 및 금융교육에 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막상 다수의 학생은 실제로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식적 원인보다 학생들의 가치관과 태도, 흥미가 낮기 때문이다. 용돈 기입장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선 지식 및 내용적 특성과 더불어 태도 및 의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동시에 용돈 기입장과 같은 학교 현장의 교육 요소가 합리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연구 또한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강지현·천혜정(2010), 초등학생의 돈에 대한 가치관 및 금융 지식이 용돈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정책교육연구, 6(4), 51-71.
-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2022), 용돈,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인터넷 자료(2022. 11. 28. 접속).
- 기획재정부(2010), 경제교육활성화 방안, [www.korea.kr/archive/expDocMainList.do](http://www.korea.kr/archive/expDocMainList.do), 정책 브리핑 정책DB 전문자료, 인터넷자료(2022. 11. 28. 접속).
- 김경모(2010), 한국 중학생 수준의 경제이해력 분석, KDI 경제정보센터, Click 경제교육 2010년 9월호.
- 김영신·강선자(1997), 아동의 용돈관리행동이 구매행동의 합리성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문제연구 20, 57-86.
- 김주훈·심재학·이성신·정영호·이지은·이용수·남선혜·조선영·김영인·이강선·서한나(2017), 생애주기별 핵심 경제 역량 연구 -경제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김홍찬(2019), 초등학생의 경제 지식이 경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금융교육연구, 6(4), 57-85.
- 김효정(2004), 아동소비자의 용돈관리행동과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42(8), 77-93.
- 노현중·박상은(2021),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한 초·중·고등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연구 문항 양호도 및 추측에 따른 응답 특성 분석, 경제교육연구, 28(3), 29-57.
- 박상은·노현중(2017), 경제에 대한 관심도와 경제이해력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제교육연구, 24(3), 109-128.
- 박송춘(2011), 초등학생의 합리적 소비습관과 경제이해력과의 관계분석, 상업교육연구, 25(4), 25-46.
- 박형준·오영수·한진수·장경호(2013),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경제이해도 측정 문항 개발, 한국경제교육협회.
- 서중해·심재학·주호성·이재열·정영호·이성신·안선경·김은희·이승주·조선영·박지연·윤승휘·이지현·김소희·이재영·이승찬·고광숙·박형준·장경호·한진수(2020), 2020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 세계일보(2022), 아이들 월 평균 용돈은 얼마? 고교생 6만4000원, 중학생 4만원대.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661546?sid=101>, 인터넷 자료 (2022. 7. 14. 접속).
- 심재학(2021), 우리나라 경제교육 실태로 본 청소년 경제이해력 제고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엄상문(2010), 초등학교 아동의 용돈 관리 실태 및 소비 행동에 관한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다연·김정숙(2017), 제주지역 청소년소비자의 용돈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소비자학회, 7(1), 73-104.
- 오영수·한진수·장경호(2012), 2012 표준 경제개념 개발 연구, 한국경제교육협회.
- 이기춘(1999), 소비자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문사.
- 이승신·유재경(2000), 청소년소비자의 용돈관리행동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생활문화·예술논집, 23, 83-101.
- 전미선·박형준(2007), 가정 용돈관리 교육이 청소년의 용돈관리 및 소비 행동에 미치는 효과, 성신여대 교육문제연구소, 42, 97-120.
- 천규승·김술(2016),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지수 측정에 관한 연구, 금융교육연구, 83-115.
- 한진수(2012), 한국 초등학생의 경제이해력 수준 -수도권 4~6학년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연구, 19(1), 1-25.
- \_\_\_\_\_ (2013a), 한국과 미국 초등학생의 경제이해력 비교, 시민교육연구, 45(1), 125-146.
- \_\_\_\_\_ (2013b), 초등학생용 경제 태도 검사 도구 개발, 경제교육연구, 20(1), 165-188.
- \_\_\_\_\_ (2017),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돈에 대한 인식과 태도, 교육논총, 36(2), 17-38.
- 한진수·이바름·정수진(2022),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금융, 금융감독원.
- Deacon, Ruth E. & Firebaugh, F. M. (1981), *Family Resources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s*, Allyn and Bacon Inc.
- Gruenberg, S. M. & Gruenberg, B. C. (1973), *Parents, Children and Money*, New York: The Viking Press.
- MoneyS (2016), 초등학생 용돈, 4명 중 1명은 한달에 1~2만원 받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186066?sid=103>, 인터넷 자료(2022. 7. 14. 접속).
- Nickell, P. & Rice, A. S. & Tucker, S. M. (1976), *Management in Family Living*, 5<sup>th</sup>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Abstract>

## **The Effec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Economic Understanding on Rational Consumption and Allowance Management Behavior**

Gyujong J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economic understanding on rational allowance consumption and management behavior. Data were collected from 653 fifth and six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elementary school students' economic understanding has a positive effect on rational allowance consumption behavior. However, it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impulse consumption or allowance management. Second, interest in the economy and confidence in rational economic behavio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llowance consumption and management behavior. Third, the amount of allowance and satisfaction with allowan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mpulse consumption. Therefore, economic education values economic understanding, but it needs to be done in a way that can foster economic interest and confidence in rational consumption and management behavior. In particular, education will be needed to continuously promote it through various activities related to real life. In addition, research on economic education using allowance, which is the tools of students' practical economic activities, should be continued.

**Key words:** Allowance management, Economic understanding, Impulse consumption, Rational consumption.

원고접수: 2023년 03월 12일

심사일: 2023년 03월 17일 ~ 2023년 04월 03일

게재확정: 2023년 04월 04일

---

\* Teacher, Misa Jungang Elementary School, Gyeonggi-do (lasola12@korea.kr).